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62.10 (-20.42)	845.84 (+1.12)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390 (-0.044)	1376.00 (-0.10)

metro® 경제

“다시 기업가정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6월 5일 수요일

2024 KOREA-AFRICA SUMMIT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마친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세이크 엘 가즈아니(앞줄 왼쪽 세번째)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ODA 100억불 수준 확대… 수출금융도 140억불 제공”

(공적개발원조)

韓-아프리카 정상회의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복합위기 국제적 협력·연대로만 극복 가능 양국 상생 파트너십 필요성 강조 원활한 교류 위해 제도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불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식’에서 개최사를 통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세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면서 한-아프리카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제시하고,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에 대해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며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속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해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관련,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식량안보와 보건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기술 전수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K-라이프스타일 사업 확장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 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참가국 정상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대 주제와 3대 방향이 ‘아프리카 2063 아젠다(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와 안전, 인간 중심 발전)’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尹, 재가… 사실상 폐기 수순 MDL 일대 사격훈련 등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됐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당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가능하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종부세·임대차2법·전세사기특별법… 여의도에 쏠린 눈

국회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주목 여야 종부세 개편·폐지 논의 급물살 전세사기특별법·임대차2법도 이견

정부가 추진 중인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모두 법 개정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임대차2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추가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 종부세, 다주택자 완화 vs 1주택자

배제 이번 종부세 개편은 야당이 먼저 불을 당겼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SNS를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개편을 꺼내들었다.

개편 방향에는 여야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정부가 내세웠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제 개편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없애졌고, 3주택자부터는 여전히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거론 중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기본공제선을 높이는 방안이다

◆ 임대차 2법·전세사기특별법 ‘여야 이목’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지는 않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년간의 결할 피해자는 1만7593명에 달한다. 정부는 2년 한시로 제정된 특별법이 일몰하는 내년 중반에는 피해자가 3만6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제는 더디게 진행 중이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했던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폐기됐다.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22대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내길 힘들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당 토론회서 “야 민생지원금 심각한 위한 논란 야기” /사진 뉴시스
▲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 “방송3법 재추진”

▲ 국힘 미디어특위, 야 방송3법 재추진에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 저지”
▲ 김기현 “이재명 대선 레드카펫 가느라 당내 민주주의 던져”



▲ 홍준표 “문재인, 판문점회담때 김정은 건넨 USB 밝혀져야” /사진 뉴시스
▲ 자유총연맹, 북 오물풍선·GPS 교란 규탄… “안보·생명 위협 안 돼”

“PF 위기설, 연내 정리 기대… 자본시장 파이키우기 더 노력”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주년

“남은 임기동안 추진과제 마무리
미래금융 장기과제 준비할 것”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관련
총리·금융위원장 등과 논의”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는 동시에 각종 현안에 대해 답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는 ‘N월 위기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에 대해서는 “PF 시장의 위험 촉발요인에 대한 진단 내지는 처방이 대중적이었고 근원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었던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현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나 대체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 중이며 짧게 보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PF 정상화가 이뤄지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 자산고착화 문제 등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를 다뤄 볼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경·공매 방식’ 위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PF 부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거버넌스 문제인 것이기 금융사가 망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만 경·공매를 꼭 집어 말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원래 욕심보다 느린 속도로 업권의 자발적인 정상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NPL(부실채권)을 파는 등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정확한 숫자가 반영 안 되는 현재 상황은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갑자기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나온 발언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지도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본시장 ‘파이 키우기’와 선진화·선순환과 관련된 밸류업이 느리다는 지적

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10년이 걸렸다”며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밸류업 노력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좀비기업이나 위법·위규 기업에 대한 대응은 꾸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총리, 금융위원장, 한은총재 등과 함께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거대세, 상속세 등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 중 특히 기업 가계 승계 등 기업과 관련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금투세 입법 당시 충분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사이 코로나19, 가상자산 활성화, 고금리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해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우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불당사자 능력 고려돼야” vs “차별적용, 사회갈등 유발”

(사용자측)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

사용자측 “미만율 업종별 차이 커
구분적용, 비정상적 상황 해소해야”

근로자측 “특정업종 최저임금 적용
인력난 악화, 해당 업종 경쟁력 하락”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등 주요 쟁점마다 다른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에 대해 각기 정반대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판 세상이 아니라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

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견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거들었다.

류기정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가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근로자측)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은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경영계는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사 결과를 놓고도 노사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제3차,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비자물가 2.7% ↑… 두달연속 3% 미만

통계청, 지난달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2%, 하반기 안정화 전망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정부 목표인 3% 미만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에 체감물가 안정화를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채소 물가의 급등 여파로 2월(3.1%)과 3월(3.1%)에 3%대를 웃돌다가 4월(2.9%)에 이어 두 달째 2%대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5월 소비자물가는 2.7%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근원물가도 2.2%로 하락하면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



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연초 적용했던 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 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김연서 기자 kys@

» 1면 ‘종부세·임대차2법’서 계속

전셋값 54주 상승에도 ‘임대차2법’ 진척 없어

전셋값이 5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시장이 들쭉이고 있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다.

임대차 2법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기존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했으며,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전세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연기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자율성만으로는 '한계'... 세제혜택·구체적 인센티브 필요

엑소더스 코리아, 돈이 떠난다

<下>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올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과 동시에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시장의 기대는 즉각적으로 증시에 반영되면서 1분기 내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밸류업 효과 증대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자율성'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밸류업에는 '자율성'만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자율성에 입각한 인센티브 제도를 방점으로 찍었다. 앞서 강제성이 없는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았으나 확정안에서도 가이드라인 초안과 유사하게 참여 여부부터 공시 내용까지 전부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다.

기업 자율에 맡긴 인센티브 정책 실효성·세제지원 필요성 등 제기 법인세 등 기업 환경 개선이 중요

이에 대해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 제도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법인세, 배당세, 소득세 등 세제 완화를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법인세는 26%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세제지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꾸준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토론' 패널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4%가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정책 성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다만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인센티브·세제 지원 내용이 발표된다면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밸류업 정책이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가 폭락했던 이틀간 밸류업 관련 공시를 냈던 KB금융과 키움증권 등의 주가는 상승했고, 밸류업 공시가 주가 반응 등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밸류업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밸류업)인센티브와 관련해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건조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가 밸류업 공시에 적극성을 보였을 때, 주가 등 관련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면 벤치마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책적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밀리는 코스피... 밸류업만 '맑음'

거래소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 한 후 코스피는 오히려 1분기 상승분을 반납했다. 발표 직후였던 27일에는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특히 29일과 30일에는 이를 연속 1.5%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코스피 2650선이 무너졌다. 다시 연초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코스피 성장 자체는 '코리아 프리미엄'과는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2635.44로 연초보다 1.29% 감소했다. 아시아 주요국 중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수는 코스피가 유일한 수준이다. 동일 기간 동안 ▲대만(TWII) 19.14% ▲일본(닛케이) 14.01% ▲베트남(VNINDEX) 11.89% ▲홍콩(항셱) 8.58 ▲인도(SENSEX) 2.27% ▲중국(CSI300) 6.14% 등은 모두 올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시는 밸류업과 무관하게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며 "반도체가 다소 부진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홍콩·일본 등 타국과 비교해 특별히 경쟁력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이 보다 추진력을 얻게 된다면 주가 반등의 여지가 생기는 하지만 밸류업만으로 현재 주가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분리과세 등의 조치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美·OECD 수준으로 낮춰야 자사주 소각·배당 분리과세 필요 KB금융·키움 공시 미흡 의견 우세

사실상 코스피 하락의 원인 자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데에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웃돌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축소된 것이다. 오히려 밸류업 관련 공시를 낸 KB금융과 키움증권은 선반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이를 동안 KB금융과 키움증권은 각각 2.07%, 5.56%씩 올랐다.

◆다짐에 가까운 '맹탕 공시'... 목적은 '밸류업 공시 1호' 타이틀

금융당국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 한 뒤 KB금융과 키움증권은 곧바로 밸류업 관련 사안을 공시했다. KB금융은 시행 첫날이었던 27일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예고 공시를 냈고, 키움증권은 국내 상장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31일에는 애프터가이드가 코스닥 상장사 중 선두로 밸류업 공시를 올렸다.

KB금융과 키움증권은 밸류업 공시를 낸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효과를 보여 주기는 했지만, 공시 내용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주주비용(COE)과 총주주이익률(TSR)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C확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 공시 내용은 대부분 지난 3월 회사가 밝힌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중복된다"며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고 깊이 고민한 흔적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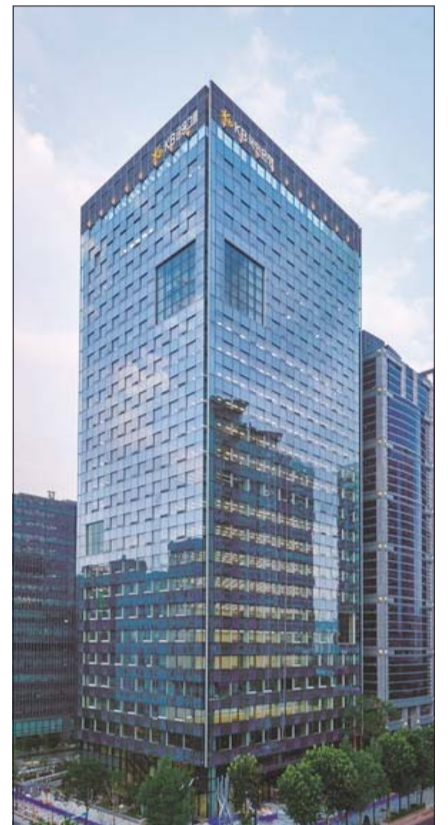
키움증권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3개년 중기 목표로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제시 ▲주주 환원율 30% 이상 ▲주기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달성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지난 3월 공시했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탕 공시'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방학 때 생활계획표를 짰던 것처럼 사실상 '다짐'에 가깝다"면서도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소통 방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키움증권 전경.



KB금융그룹 전경.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인천입니다

2조 4천억원 경제효과!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

3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초격차·세대교체·준법경영... '뉴삼성' 혁신 드라이브

다시 기업가정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기업이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자본주의 시대다. 정부가 술한 캠페인과 아이디어를 내놔도 한 기업이 도입한 사내 복지가, 때로는 기업의 총수가 보여준 한 행동이 사회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곤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다. 그런 그의 행보는 사업보국(事業保國)을 말하던 창업주 호암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을 닮아있다. 다른 점은 시대가 변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게 되며 보폭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삼성의 나침반이면서 동시에 엔진으로써 활약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술선수범'의 기업가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세계 곳곳을 누비고 노력으로 만든 글로벌 네트워크를 심분 활용하며 번거로움을 마다않는다. 이익을 좇아 회사를 통해 좋은 일 하고 떠날 리기 보다는 남 모르게 술선수범한다.

이 회장, 기업가 정신 '술선수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 적극 활용 해외수주·M&A 등 해결사 역할

이 회장의 업적을 말할 때면 항상 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거론된다. 이 회장은 기업 내에서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핵심 사업을 키우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나침반의 역할만을 하며 손가락 지시만을 이어가는 기업인들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바로 이 회장이다.

대표적인 일이 지난 2020년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세계 1위 버라이즌과 7.9조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당시 8조 원에 달하는 장기 공급 계약은 이 회장의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와의 인연이 계약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 이 회장은 2012년 스웨덴 발렌베리그룹 경영진이 방한 한 때 에릭슨 회장 자격으로 온 베스트베리 CEO를 비공개 만찬에 초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했다. 삼성에 따르면 당시 베스트베리 CEO는 만찬 후 "삼성전자와 4G 이동통신 분야 공조를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 회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차례 전화와 영상회의를 거치며 삼성의 장점을 어필했다. 몇 년에 걸친 이 회장의 러브콜은 결국 8조 원에 달하는 수주 결과로 돌아왔다.

세계 관계자들은 "버라이즌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데 성공한 것은 결국 기술력과 보안성은 물론, 총수가 보여준 열정과 오랜 신뢰, 협력 관계 덕"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초유의 기업들만이 이 회장의 환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 회장은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인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며 미래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LJF는 이견희 선대회장이 일본 내 ▲반도체 ▲휴대폰 ▲TV 등 IT업계 기업들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해 1993년 시작된 모임이다. 이견희 선대 회장이 '구매의 예술화'를 통해 협력사들의 성장에 곧 삼성의 초일류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이 된다고 말한 바를 이 회장 또한 공감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격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21년 1월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설비 반입식에서도 원익IPS, 솔

브레인, 피에스케이, 동진세미켐 등 협력사 대표들을 초대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육성 및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반입식에서 "함께 하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며 다독였다.

반도체 부문 등 과격 인사 단행 장기적·근원적 기술경쟁력 확보 작년 사회공헌 정보량 최다 기록

기업 활동 밖에서도 이 회장의 '술선수범' 정신은 빛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지난 4월 데이터엔리서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집단 수장 중 가장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0대 그룹 총수의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이 회장은 지난해 1년간 총 7589건의 사회공헌 관련 정보량을 기록했고, 이는 2위를 차지한 최태원 SK 회장 3832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지난달 국제청법인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호암재단에 개인 자격으로

2억 원을 기부하며 삼성계열사를 제외한 유일한 개인 자격 출연자(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바도 있다. 국가를 위한 기업 경영을 했던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생의 유지가 대를 이어 이재용 회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재용 회장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에 20년 이상 후원을 이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인적 네트워크의 힘이 빛나는 이 회장의 경영 행보지만 과감성도 있다.

최근 삼성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수장과 '사업지원 TF' 반도체 담당을 전격 교체했다. 통상 연말 임원 인사를 진행하는 의례를 갠 깜짝 인사에는 최근 폭주기관차처럼 반도체 시장이 넓어지고, 또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삼성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수장을 교체하고, 김용관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을 반도체 담당 사업지원 TF로 복귀시켰다. 이 회장은 '뉴삼성'의 기반을 '초격차 기술'에 두고 "변하는 환경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장기적·근원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핵심 성장 동력을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최초'의 타이틀을 단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대를 개막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ICT 산업계를 강타한 최근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D램,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HBM 시장으로 급변한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며 경쟁사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인경 경영을 추구한다는 주변의 의심을 불식시켰다.

이 회장의 정신은 기업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매년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많은 기부액이 물리는 사업은 바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이다. 2016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열 한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가 개소했다. 올 10월 충북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센터에서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삼성희망디딤돌은 이 회장의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동행 철학'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 2022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대화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함께 프로젝트



세 번째 희망 이야기
소상공인 편-②

뚝뚝뚝 희망이 피어나는 빵집

전 아토피 삼 남매의 아버였습니다

몸이 가려워서 엉엉 울면서도
세상에서 빵이 가장 좋다는 아이를 위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빵집을 차린 지 어느덧 7년

무조건 착한 성분, 유기농만을
고집하다 보니 솔직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때가 더 많지만

제 아이도, 저희 빵을 먹으러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의 건강도
좋아지는 보람만큼은
뽕뽕하게 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따뜻한 내일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희망 곁에
늘 KB가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동대문구 이문동 '서울쉬폰'
강석 사장님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료와 디저트를
착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 KB금융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박은빈이 부른 '꿈따리 사바라'를 감상해 보세요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KB마음가게'

KB금융그룹은 어려운 시기에든 착한 가격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선정하여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KB의 광고를 노출하고, 사장님들에게 소정의 광고비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與 “전대, 내달 25일 개최”... 지도체제·당대표 경선 룰 논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11명 당헌·당규특위 총 7명으로 구성 지도체제 이견, 한동훈 견제 영향 전대 기간 촉박... 현행 유지 가닥 당대표 경선 룰 변경될 것으로 보여 당내 의견 수렴절차 밝기로 결정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4일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날(3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7월 25일로 정했다. 그리고 이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당대회 룰(규칙) 변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당 대표 선출 일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내달 26일 개막해 8월11일 폐

막한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당헌·당규 특위는 총 7명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전당대회 날짜는 잠정적으로 내달 25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도체제

와 당대표 경선 룰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기 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체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 득표순으로 대표를 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수직적인 당정관계

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도부 구성원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또,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절충형 지도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통합 경선을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지도체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단지도체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한동훈 대세론’에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도부는 전당대회일은 기간이 촉박해 지도체제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도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로) 결론낸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집단 지도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경선 룰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유리하도록 만든 경선 룰로, 이로 인해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서는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대표 경선 규정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밝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현행 룰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종부세 공식논의 안 해... 내달 결론낼 것” 접경지역 훈련 재개·대북 확성기 사용 가능

국민 실생활 등에 큰 영향 미쳐 ‘신중’ 내달 정부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 맞춰 어떤 입장 취할 것인지 의논·결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월쯤으로 예상

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 1면 ‘9·19 군사합의...’서 계속 군은 이미 강원도나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검토할 전망이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

PS) 교란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자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같은날 저녁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청년의 꿈 하나증권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청년케어'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증권 '청년케어'

하나증권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약 20만명의 청년 중에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브랜드240108-0086

하나증권

‘카드수수료 갈등’ 고조… 당국 재산정 딜레마

마트-롯데카드 ‘보이콧’ 장기화
카드사-가맹점 갈등 심화 우려

당국, 적격비용 재산정 늦어져
카드사 “산정주기 연장” 목소리

한국마트협회의 롯데카드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3년마다 진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돌아왔다.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판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12년간 진행했지만 단 한차례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상반기 내에 재산정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롯데카드와 한국마트협회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다. 마트협회는 롯데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



서울시내 한 마트 입구에 A카드 ‘보이콧’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김정산 기자

하고 있다며 가맹점 해지라는 강수를 뒀다.

카드업계에서는 롯데카드와 마트협회 간 분쟁으로만 바싹 안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마트협회의 보이콧이 다가오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의식한 일종의 ‘시위’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상 적격비용 재산정은 연초, 늦어도 상반기 내에 매듭짓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그러나 올해 재산정 논의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주목도가 높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정치권에서 총선 전 관련 논의를 주저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이 반갑지만 금융당국이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카드사와 가맹점의 갈등 구도가 길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카드사의 이상적인 시나리오

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조달비용 상승이다.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서 채권발행비용이 올랐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연 3.75%를 나타냈다. 가장 최근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진 지난 2021년 여전채 금리가 연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넘게 치솟았다.

이마저도 AA+ 등급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카드)에만 해당한다. 우리·하나카드의 경우 AA등급, 롯데카드의 경우 AA- 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같은 잔액을 조달하더라도 더 높은 비용이 드는 것.

카드업계는 현실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 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업 운영에 안정성을 높여달라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서와 잘 맞아떨어진다”며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대출서비스 확대 등 또 다른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정경선 현대해상 CSO(오른쪽)와 지동섭 SK SUPEX 추구협회의 SV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현대해상-SK그룹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현대해상이 SK그룹과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현대해상은 SK SUPEX 추구협회의 SV(Social Value)위원회와 지난 3일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 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및 주최한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지원과 CSR 사업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경선 현대해상 CSO는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보생명 유병력자·고령자 위해 보장·연금 혜택 강화

교보생명이 종신보장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 유병자보험 건강보장 라인업 확대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3가지 질문에 답하면 최소한의 심사로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함목은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조건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고령층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가입나이를 70세까지 늘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했다. 저해약환급금형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이 가장 필요한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진단보험금을 확대하고 중복 보장, 치료 후 연금 지급 등 혜택을 강화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재근 “넘버원 금융사간 제휴… 혁신 사례로 남을 것”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회원 전용 입출금통장 등
차별화된 금융 상품 라인업 구축

KB국민은행이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손잡고 입출금통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 내 बैं킹 거래 및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금융 분야의 두 선두 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삼성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금융네트웍스를 대표해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과 이재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삼성본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를 대표하여 삼성카드 김대환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여섯번째),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모니모 관련 업무 담당 임원, KB국민은행 임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이 보유한 상품 경쟁력과 채널망을 활용하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모니모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이번 제휴가 넘버원(No.1) 금융사

간 제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성공적인 혁신 사례로 남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내 차별화된 혜택을 갖춘 금융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첫 협업 사례로 모니모 회원 전용 입출금통장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통장은 모니모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삼성금융네트웍스 및 모니모 이용 수준에 맞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양사는 상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사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모 전용 금융 상품·서비스 공동 기획 ▲모니모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디지털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활용 등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삼성물산 “외부상가 식음료, 로봇이 배달해 드려요”

뉴빌리티와 협업 ‘딜리픽미’ 로봇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시범운영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인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지만 작년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 지역 외에도 운행안전

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딜리픽미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외부 상가를 연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다. 지난 2020년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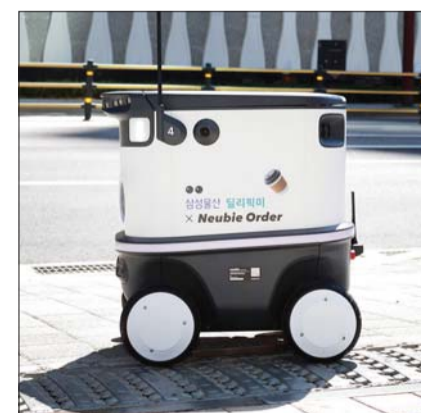
입주민은 주문과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이 픽업부터 복잡한 골목과 횡단 보도를 건너 단지내 배송까지,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인근 상가의 식음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최소 주문금액의 제한 없는 무

료 배송을 비롯해 입주민 전원에게 구매 쿠폰 증정과 매월 최대 이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가진 뒤 배송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집과 택배를 세대 앞까지 배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넓혀갈 계획이다.

조혜정 삼성물산 Dxp사업본부장(상무)은 “로봇이 실생활에 파고 들어 입주민에게 편리함을 더하고, 미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시범



음료 픽업을 위해 상가로 이동중인 ‘딜리픽미’ 로봇. /삼성물산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적용이 가능한 주거 단지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정기선 “친환경·디지털 선박 개발, 바다 대전환 주도할 것”

(HD현대 부회장)

HD현대, ‘포시도니아 2024’ 참가 정기선 부회장 등 경영진 현장 참여 메탄을 추진선·저탄소 연료 선박

HD현대가 세계 최대 조선·해양박람회 ‘포시도니아 2024’에서 미래형 선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등 HD현대 6개 사는 이달 3~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4’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77개국,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HD현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관에 부스를 마련해 메탄을 추진 원유운반선(VLCC)과 컨테이너운반선, 미래형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모형을 전시하고, 차세대 저탄소 연료 관련 기술을 선보인다. 별도로 마련한 HD현대 그룹관에는 이중 연료 힘센엔진과 노후 LNG선 개조 모형 등을 전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기선 HD현대 부



(왼쪽 일곱 번째)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포시도니아 2024’에서 미국선급협회(ABS), 라이베리아기국(LISC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선박 사각지대를 해소한 새로운 선박 구조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글로벌 선사 및 선급 등 조선·해양 관계자들과 조선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지난 3일 미국선급협회(ABS), 라이베리아기국(LISC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선박 사각지대를 해소한 새로운 선박 구조 개발’에 관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선박 내 사각지대를 ‘제로(zero)화’한 미래형 선박 개발에 나선다. 이 선박은 카메라로 선박 내 사각지대를 촬영한 뒤 AI 기술을 통해 재구성하여 시각화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규정상 시야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 불필요해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종실 높이와 관계없이 화물을 선적할 수 있어 적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ABS와 LISCR은 HD현대가 개발하는 선박에 적합한 규정 변경 제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기술 상용화 및 AI 기반 선박 시장 선점에 유리하고

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HD현대가 개발한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기본 인증(AIP)도 잇따라 이뤄진다.

HD현대는 4월 미국 아모지사와 공동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반의 무탄소 전기추진시스템 및 발전용 엔진 대체 기술을 적용한 암모니아추진선에 대해 각각 영국 로이드선급(LR)과 미국선급으로부터 기본인증을 획득한다.

스위스 윈지디(WinGD) 등과 함께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 엔진 및 연료공급시스템과 HD현대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안전 패키지를 적용한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및 컨테이너선에 대해 미국선급,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오는 5일과 6일 각각 기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형 선박 개발을 통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바다의 대전환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T-MS, AI·IT 등 첨단산업 분야 동행

양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멀티 초거대언어모델 구축 방침

KT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을 잡았다. KT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MS와 AI·클라우드·IT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겸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T와 MS는 ▲AI·클라우드 연구개발 공동 프로젝트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 개발 ▲AI·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AI·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함께한다.

양사는 국내 AI·클라우드 산업에의 대규모의 협력과 지원 전략을 9월까지 상세화 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왼쪽)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KT는 MS 기술을 활용해 공공과 금융 분야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및 AI 주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AI’를 개발해 한국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KT는 MS와 멀티 초거대언어모델(LLM) 전략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믿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현재 AI컨택센터(AICC)에 적용한 상황이다.

이번 협력으로 믿음은 산업에 특화된 경량화언어모델(sLLM)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KT는 MS와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가져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KT가 출시할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AICT 컴퍼니’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취임 후 연말부터 6개월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KT가 쌓아온 국내 사업 경험과 MS의 기술력을 결합하기로 했다”며 “MS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이질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가동식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본격 가동

영광낙월 프로젝트 내부망 생산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공급사로 자리매김한다.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 시아산국가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의 건설을 완료하고, 지난 3일에 공장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1공장은 평택 당진항의 고대부두 배후 부지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 4만4800㎡(약 1만3500평)로, 2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1단계 공장

은 해상풍력 내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설비로 지난 5월 준공 승인을 완료했다.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과정을 거친 후,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내부망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설비가 완비돼 매년 급성장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다”라며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기아, EV3 사전계약 돌입

기아가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더기아 EV3(이하 EV3)’의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

기아는 EV3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지점과 대리점에서 계약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 적용 기준 EV3의 판매 가격을 스탠다드 모델 3995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 4415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스탠다드 모델은 3000만원 초중반, 롱레인지 모델은 3000만원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차현정 기자

SK가스, LNG·LPG 통합 가스발전소 운영

울산지피에스 LNG 시운전 성공

SK가스가 투자한 울산지피에스의 LNG 시운전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SK가스 LNG 사업의 핵심 인프라들이 성공적으로 연결됐다.

4일 SK가스에 따르면 울산지피에스가 가스터빈 최초 점화 성공을 통한 통합 시운전에 돌입했다.

울산지피에스는 지난 5월 1일 LNG 연료를 연소해 400MW(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가동하는 최초 점화에 성공했다. 이번 최초 점화는 지난 4월 LNG 터미널인 KET에 처음 도입된 LNG가 사용되면서 SK가스 LNG 밸류체

인의 핵심인 터미널사업과 발전사업의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SK가스는 설명했다.

지난달 7일에는 LNG 연소를 통해 발생한 전기를 한국전력 계통망에 연결해 공급하는 전력계통 연결에도 성공했다. 이는 울산지피에스가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고 있음을 뜻한다.

SK가스는 울산지피에스의 LPG 연료를 사용한 가스터빈·스팀터빈 가동 등 통합 시운전과, KET와의 운영 안정화를 거쳐 올해 하반기 LNG사업의 상업 가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한국타이어, 유럽서 TBR 기술력 뽐내

(트럭·버스용 타이어)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4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전파”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트럭·버스용 타이어(Truck and Bus Radial, TBR)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국타이어는 4~6일(현지시간) 영국 워릭셔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상용차 박람회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3년 연속 전용 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TBR 기술력을 소개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e 스마트 시티 AU56(e-SMART City AU56) ▲스마트플렉스 AL51(SmartFlex AL51) ▲스마트플렉스 DL51(SmartFlex DL51) 등이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를 통해 영국 상용차 타이어 교체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유럽에 자사의 TBR 기술력을 다시 한번 알리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전파할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유럽연합, CBAM 2026년 본격 시행... 철강업 가장 큰 영향권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후 내후년 1월부터 '관세' 적용대상 업종, 향후 더 늘어날 전망 수출제품 CBAM 여부 확인 '1순위' EU CBAM 헬프데스크 등 적극 활용

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당장 EU에 수출하는 100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자금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CBAM 시행에 앞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등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CBAM은 제품 중간 가공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줘 사실상 대상 기업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해 내년까지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기간을 거쳐 내후년 시행하는 CBAM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6개 분야의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맞먹는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사실상 '관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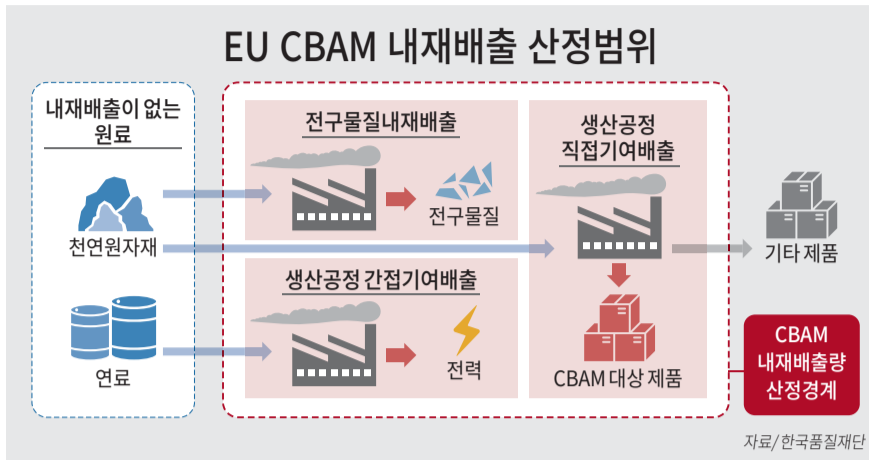
6개 분야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력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철강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 업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을 위한 첫 단계는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EU에서 시작한 CBAM은 향후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BCA)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들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EU에 지난 한 해 제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은 총 1850개사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3.4%인 1358개사로 집계됐다. 수출 중소기업 중 CBAM 적용 대상 업종별로는 철강이 전체의 79.4%인 1078개사로 가장 많고 알루미늄(273개사), 비료(6개사), 수소(1개사) 순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들 6개 업종이 EU로 수출한 총액은 54억1200만



유료(한화 약 7조7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철강이 48억1500만 유로로 6대 분야 중 88.9%를 차지해 절대적이다. 다음은 알루미늄(5억9000만 유로), 비료(721만4000유로) 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조강(강철) 생산량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정형생산지원센터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 중에선 CBAM 제도를 모르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수출시 기업이 작성한 한국의 HS코드가 EU의 CN코드와 다를 수 있는 만큼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상품의 CN코드를 명확히 확인해 CBAM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중순 내놓은 '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3%는 EU의 CBAM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EU에 제품을 수출했거나 예정인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9%는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토로했다. 원하는 CBAM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 등 정보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하이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순으로 많았다.

CBAM을 통해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하는 관세(CBAM 인증서 가격)의 핵심은 '상품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고유 내재배출량'(SEE)을 계산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EU의 산정 방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고유 내재배출량은 다시 '간접 고유 내재배출량'과 '직접 고유 내재배출량'으로 나뉜다.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할당량'을 제외하고, 또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뺀 나머지가 CBAM 인증서 가격, 즉 관세다. 이를 EU 수입업자나 세관대리인이 납부하는 구조다.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CBAM은 철강 제조업 등 적용 대상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 가공단계, 그리고 제품을 파는 무역상사 등 여러 업종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결국 기업들은 고유 내재배출량,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CBAM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이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들은 EU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EU CBAM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단 외에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CBAM 컨설팅·인프라구축 사업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EU에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수출한 기업이 355개사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을 투입해 450개 기업에 대해 CBAM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효성중공업, 모잠비크에 428억 전력망 강화

아프리카 전력시장 공략에 박차

효성중공업이 모잠비크에 대규모 전력기 공급 및 변전소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아프리카 전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모잠비크 국영 전력청인 EDM과 총 428억원 규모의 모잠비크 전력망 강화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식 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잠비크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것이다. 모잠비크는 노후화된 변압기 및 주변 변전소 기자재 교체 및 증설을 통해 향후 전력소비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중공업은 2029년까지 220kV(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14기를 교체 및

증설 공급하고, 노후화된 변전소의 설비 개선 및 용량 증대도 수행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효성중공업이 그동안 아프리카 시장에서 10년 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검증 받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국 등 경쟁사들의 저가 중심 가격 시장이었던 모잠비크에서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운용 노하우 등 토탈 솔루션 전력 업체로서의 역량을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효성중공업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신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CJ대한통운, 물류로봇 도입 가속화

리비아오 로보틱스와 파트너십

CJ대한통운이 글로벌 물류로봇 기업과 손잡고 물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붙인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오 로보틱스(Libiao Robotics)와 전략적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CJ대한통운의 자체 로봇 통합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로봇기술은 특정 공정을 위해 개발하기 때문에 전후 운영과정과 시스템 연동 과정을 거쳐야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개별 로봇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각 현장에 맞게 최적화하고, 나아가 물류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로봇 통합제어 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리비아오 로보틱스는 지능형 분류로봇에 특화된 글로벌 물류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분류·피킹 로봇 생산에 특화됐다. 휴대용·모듈식 설계 구조로 이뤄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 장소와 수량을 조절하기가 쉬워 물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적합하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2년부터 리비아오와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실제 물류 현장에서 리비아오 로보틱스 로봇을 활용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생산성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포스코인터, 호주 '천연가스' 증산 본격화

자회사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입 LNG 120만톤 생산할 수 있는 수량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세넥스에너지에 적기 투자를 통해 증산 계획을 본격화하며 호주 천연가스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세넥스에너지에 파트너사인 헥에너지와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6년까지 연간 60페타줄(PJ)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 양사는 총 6억5000만 호주달러(약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세넥스에너지 직원들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율 50.1%에 따라 3억2600만 호주달러(약 3000억원)를 투자해 세넥스에너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60페타줄(PJ)은 LNG 1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번에 승인된 투자금은 가스 생산정을 추가로 시추하고 가스처리시설과 수송관 등 가스전 생산설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폭적으로 투자에 나선 이유는 호주 동부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에 발표한 천연가스 생산량 3배 증산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호주 정부 역시 지난 5월 9일 미래가스전략(Future Gas Strategy)을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기아, '무도장 복합재 기술' 양산

'ST1카고' 루프 스포일러 최초 적용

현대자동차·기아가 '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법'을 통해 고객의 기호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모빌리티를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일반적인 도장 공정 없이도 매끄러운 차체 표면이 유지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 양산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조 공법은 현대차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모델 'ST1카고'의 루프 스포일러에 최초로 적용됐다.

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은 플라스틱 복합재를 활용해 별도의 도장 작업 없이 차량 외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제조 공법이다. 또한 일반적인 자동

차 도장 공정을 대체하기 위해 투명층과 컬러층이 적층된 컬러 원소재를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컬러가 입혀진 원소재를 가열해 연화(軟化)시킨 뒤 금형 위에 올려 루프 스포일러 모양의 외관 성형물을 제작한다.

이후 특정 이상의 강도 확보를 위해 성형물 안쪽에 열경화성 소재인 폴리우레탄과 유리 섬유를 도포한 뒤 금형으로 다시 누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완성한다.

차현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상담문의 1855-1094

신영증권, 3년 만의 배당금 인상... 최대 수혜자는 '오너일가'

보통주 주당 4500원, 우선주 4550원
지난 3월 기준, 배당금 총 약 361억
자사주 비율·오너 일가 지분 높아
부국·대신증권 비중 과도 지적도

신영증권이 3년 만에 주당 배당금을 인상했지만, 높은 자사주(자기주식) 비율로 인해 실질적 수혜 대상은 오너 일가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내 주주환원 기조가 높아지면서 '오너 회사'인 신영·부국·대신증권 등의 자사주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날은 전 거래일보다 1.89% 오른 7만5400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신영증권은 보통주 1주당 4500원, 우선주 1주당 4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신영증권이 주당 배당금을 올린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최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배당금 증가로 오너 일가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로, 약 3년 만이다.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의 배당기준일은 지난 3월 31일로, 배당금 총액은 약 361억원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으로, 주주총회는 6월 21일 예정돼 있다. 다만 신영증권은 자사주비율과 오너 일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원국

희 명예회장, 원종석 회장 등의 배당금 수령액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원 명예회장은 보통주 152만3340주(16.15%), 우선주 19만470주(2.72%)를 보유하고 있어 각각 68억5503만원, 8억6664만원 등 총 77억2167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원 회장도 보통주 100만5594주

(10.66%), 우선주 29만8623주(4.26%)를 들고 있어 총 58억8390만원(45억2517만원+13억5873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3월말 기준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율은 보통주의 33.58%, 우선주의 75.11%로 총 51.28% 수준이다. 자사주는 배당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를 제한하면 주주들의 실질적 지분율이 오르는 것이다. 결국 배당금 인상을 통한 최대 수혜는 신영증권 오너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계획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신영증권은 항상 주주가치제고에 앞장 서왔으며, 이를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고객과 주주, 직원 모두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자기주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을 비롯해 부국증권, 대신증권 등은 자사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

다. 각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부국 42.7%, 신영 36.2%, 대신 29.2% 순이다. 세 증권사 모두 오너 회사라는 점과 최근 10년 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은 자사주를 일부 처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목적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사주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높아진 만큼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가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로 증권사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강화됐다"며 "이미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한 증권사들은 향후 자사주 매입 효과 등을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日 정부, 톱다운으로 시장 밸류업 이끌어” “부동산펀드로 고수익”... 유사수신 사기 기승

서유석 금투협회장, 日과 단독 대담
日 증시상승 배경·밸류업 방향성 논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자본 시장 밸류업으로 이어졌다”

토시오모리타(Toshio Morita) 일본증권협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진행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의 단독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독일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를 위해 방문하던 중 이뤄진 것으로 양 협회장은 대담을 통해 일본 증시상승 배경과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일본 증시 활성화가 가능해진 주된 요인에 대해 모리타 회장은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자본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며 “특히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신(新) NISA 제도'에 대해서는 “올 1월 개편된 일본의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로, 보유한



서유석(왼쪽 두번째) 금융투자협회장과 토시오 모리타 일본증권협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달 20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에 참석해 대담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엔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 NISA 계좌개설 수가 전년 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 금액도 2.8배 올랐다”며 “신 NISA가 지속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 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 교육 강

화를 들었다. 모리타 협회장은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NISA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금융만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자산운용업 발전의 목표에 대해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 추후에는 자산운용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

서학개미, '고공행진' 엔비디아 추격 매수

해외주식 Click

예상치 뛰어넘은 실적·주식분할 발표
순매수 1위 종목... 8843만달러 유입
델 테크놀로지스 등 AI 관련주 '관심'

최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고점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 매수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AI) 관련주에 대한 투

자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엔비디아로 8843만달러가 유입됐다. 지난달 22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1분기 실적 및 10대 1의 주식분할 발표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최근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임에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가 주식 액면 분할을 하면 추가 랠리

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재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은 엔비디아의 높은 성장 지속 여부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엔비디아의 행보는 주주들의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외에도 서학개미들은 AI 관련주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AI 서버로 강자로 주목되는 델 테크놀로지스(6570만달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100만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원관희 기자

아비트리지 거래 등으로 투자자 유인

#.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아비트리지(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거래'로 원금보장은 물론 8시간마다 0.5%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유명인이 홈페이지 광고에 등장하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와 함께 정식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등록회사라고 하는 안내를 보고 거액의 투자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중도 해지를 신청하자 해당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90%를 공제한 후 10%만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그곳은 불법 업체였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아비트리지 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안전한 고수익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 아파트 건축 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자금을 모집했다.

월 환산 57%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리지 거래 및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리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zekova@

미래에셋운용, 온디바이스AI ETF 836억 기록

국내 상장된 AI·반도체 ETF 중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 온디바이스AI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800억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운용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종가 기준 TIGER 글로벌 온디바이스AI ETF 순자산은 836억 원을 기록했다”며 “상장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룬 성과”라고 4일 밝혔다. 상장일인 지난 달 16일부터 3일까지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270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AI 및 반도체 투자 주식형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온디바이스AI'란 사용자의 기기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바로 수행되는 것으로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기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연산을 처리한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없어 네트워크 지연, 보안 문제, 전력 소모 등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AI는 앞으로 AI를 개인 비서처럼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기술로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TIGER 글로벌 온디바이스AI ETF는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AI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AI폰, AI PC 등에서 자체적으로 온디바이스AI를 연산하기 위한 신경망 연산 장치(NPU)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연산장치 점유율 1위인 ARM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퀄컴과 애플 등을 담았다. /허정윤 기자

“대출 갈아타기로 고금리 부담 줄이고 신규 주택대출, 은행 vs 정부 상품 비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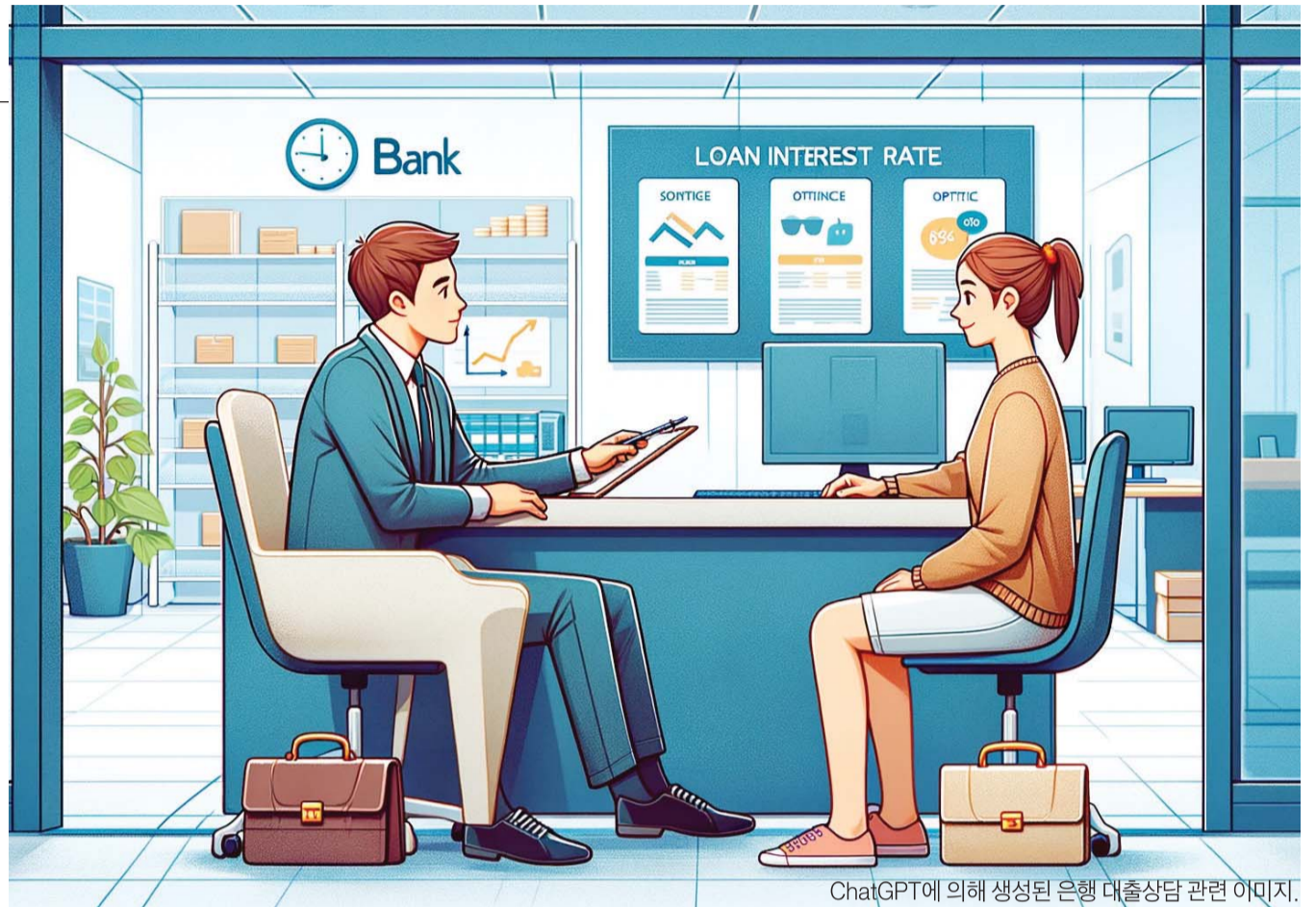
고금리 시대, 이자 줄이기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1%에 달한다. 이는 국제금융협회가 선진·신흥시장으로 분류한 34개국 중 1위다. 액수로 환산한 가구별 평균 부채는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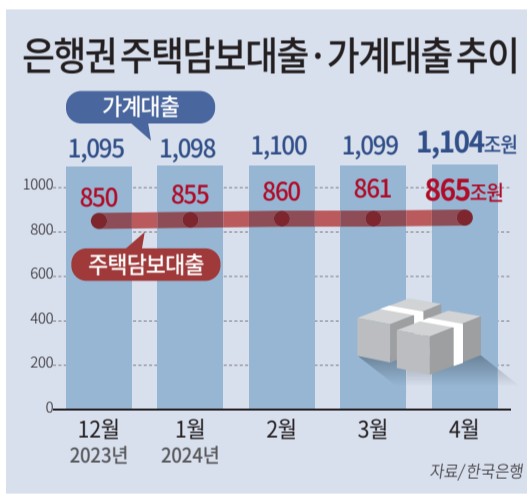
대출 유형별로는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1104조원)의 약 78%(865조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 평균 금리는 연 3.71%~4.85%(10년 이상, 혼합형)였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전세대출(보증기관 보증대출 기준)의 평균 금리는 연 3.58%~5.74%였으며, 서민 가구의 이용이 잦은 은행권 무담보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도 연 4.18%~10.61%에 달했다.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대출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부담해야 할 이자액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은행 대출상담 관련 이미지.



◆ 더 낮은 이자로 대출 갈아타기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온라인으로 금리를 비교해 이자 부담이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제도는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주는 인터넷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만으로 더 저렴한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1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에도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담대·전세대출 이용자도 쉽게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 이후 3만4207명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했고, 1인당 평균 이자 감면액은 연 262만원에 달했다.

다만 대출 갈아타기는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고,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잔여 임대차 기간이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 이상 일 때만(6월 3일부터는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외 오피스텔·빌라 등 주거용 건물의 경우 현재는 대출 갈아타기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 GDP의 100.1% 국제금융협회 선진·신흥시장서 1위

인터넷 대출비교 플랫폼서 금리 비교 온라인 서류 제출만으로 저금리 이동 올해 1인당 평균 연 262만원 이자감면

대출이동 어렵거나 기업대출 이용자 금융기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가능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세 조화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9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 참여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 정책금융상품과 비교하기

새롭게 주택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부의 주택 정책금융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자금의 70% 한도로 최대 3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주택 정책금융상품이다.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있어 은행채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변동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연 4.2~4.5%로 은행권 혼합형 주담대보다 금리가 근소하게 높지만 저소득층, 신흥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3.2~3.5%의 금리에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 심사에 요구하는 최저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변동도 없어 중·저신용자의 경우 보금자리론이 은행권 주담대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올해로 중단되면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로 다소 까다로워졌다.

결혼 및 출생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초 새롭게 출시된 주택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난 1월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로 나눠 운영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이력이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연 2억원 이하, 순자산 규모가 4억6900만원 이하 가구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부부소득 규모에 따라 연 1.1~3.3%이다. 최고 금리 적용 시에도 은행권 대출·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 또한 특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면적 85㎡ 이하(읍·면 소재 시 100㎡ 이하) 주택이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대출 이동이 어렵거나 기업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소득증가·신용점수 상승·매출증가 등을 사유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저축은행 등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시장금리 및 신용 상태 변화에 따라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승진·이직으로 급여 및 안정성이 개선됐을 때 ▲연간소득이 대출 시점보다 증가했을 때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이 크게 개선됐을 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점수가 향상됐을 때 등이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차주가 직접 상환능력 개선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자격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리인하심사는 연 2회까지만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발생일(신규 대출·대출 연장·대출 증액)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이나 고정금리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어렵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년도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금융위원회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 제한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소득	7천만원	8천5백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제한없음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3억6천만원			4억원		4억원
LTV	70%					100%

·만기 10~50년, 40년만기 :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50년만기 : 34세 이하 (신혼부부 39세)

<2024년 6월 기준 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

(단위 : %)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보금자리론(‘아낌’ 기준)	4.05	4.15	4.20	4.25	4.30	4.35

주) 다만,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비대면(‘u’방식) 및 대면(‘t’방식) 적용 금리는 0.1%포인트 가산

송미령 “보릿고개 극복 경험으로 K-농업 아프리카에 전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韓·아프리카 농업컨퍼런스 참석
K-농업 아프리카 진출 발판 마련
2321t 종자 취약계층에 제공 계획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과 농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5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를 주제로,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 기술력을 전파하고, 아프리카의 풍부한 핵심 광물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호혜적 협력 추진방안 논의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을 앞둔 송 장관은 “한국과의 농업 협력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보릿고개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는 K-푸드 및 한국산 농기계를 포함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농업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등 전(全)지구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 회의에는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을 비롯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해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아프리카 9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4개국(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대륙 내 쌀 생산성 향상도 모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공유한다. 한국은 또 코모로와 농업 분야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최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2321톤(t)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 가나 330t을 비롯해 감비아 180t, 세네갈 66t, 기니 1119t, 카메룬 111t 우간다 515t 등이다.

지난해 시작된 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작년에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해당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했다.

당초 목표인 2040t을 14% 상회하는 2321t을 최종 수확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자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t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현지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거주민 3000만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냉동 떡볶이 등 쌀가공식품 한 자리에”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11일 개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이 오는 11~14일 나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에는 총 49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한다. 국내외 유통업체·바이어에게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쌀가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는 '글로벌 식문화의 리더 한국 쌀 가공품을 만나보세요'라는 주제로 최신 제품 및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종합전시관(주제관, 수출상담관)과 기업관을 운영한다.

종합전시관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우수 쌀가공품(쌀플러스) 10개 제품을 선보인다. 또 최근 수출 효자 품목인 냉동 김밥·떡볶이·가공밥류 등을 비롯한 다



지난 2022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의 모습. /뉴시스

양한 쌀가공식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기업관에선 떡·쌀과자·음료 등을 전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가공식품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4월까지 수출액은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쌀가공식품이 개발되고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제환경규범 대응 위한 인재 키운다

환경부, 심화 과정 등 800명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환경규범 대응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오는 25일부터 ESG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엔 지난해 대비 수강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당초 150여 명 수강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465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 교육 수요를 반영해 양성규모를 800여 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과정 횟수 역시 확대해 기업 실무자들이 ESG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ESG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손꼽고 있

다. 환경부는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종합 교육과정' 외에도 '기초 교육과정'과 환경과 관련된 심화 주제(공시, 공급망실사, 전과정평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다루는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생들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외에, 제품 단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LCA),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방법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AI가 경력·연령 맞춰 일자리 추천해요”

일자리 정보 10월까지 단계적 확대
'잡케어 서비스' 세부 임금정보 제공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AI(인공지능)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부터 '고용24'를 통한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에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가 추가된다. 'AI 일자리 매칭'은 딥러닝 기술(DeepFM)과 행동·직무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2020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 일자리를 추천하고 최근 4년간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앞으로는 20대는 희망직종, 30~40대는 희망직종과 임금, 50~60대는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나와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또 AI 일자리 추천에 활용되는 일자리 정보도 현재 워크넷과 민간취업포털 정보기술(IT) 직종에서 민간취업포털 전 직종으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구직자가 공공과 민간 일자리 정보를 빠짐없이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구간 워크넷 구인·구직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던 노동시장 정보를 고용보험 정보까지 확대(8종 → 13종)해 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잡케어에서는 임금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구인기업의 제시임금과 실제 취업 후 취득임금 차이, 희망직종에 취업한 후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른 보수정보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

우수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 이를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

시)'도 새롭게 만들었다. 시행령과 고시는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6월 모평 '국·수·영' 변별력 충분... '킬러문항'도 없었다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나와
연계율 51.1%... 난도 낮은 건 아나
수학도 전년비 쉬워... 연계율 50.0%
문제 배열 바뀌며 체감 난이도 높아
영어, 다양한 유형서 골고루 출제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으로 4일 전국 2114개 고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한편, 변별력은 충분했다고 분석됐다. 정부 방침대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워
1교시 국어 영역은 2024년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한편,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EBS 수능 교사단은 국어 영역의 출제경향에 대해 EBS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2교시 수학 시험지를 받고 있다. /뉴스1

S연계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EBS 수능 연계교재에 다뤘던 제제나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밝힌 EBS와 국어영역 연계율은 51.1%다.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은 국어영역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교사단 설명이다. 교사단은 "EBS 수능 연계교재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지난해 수능 본시험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수능 국어는 만점자 표준점수가 150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시험으로 손꼽히면서 이번 시험도 난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입시전문가 중론이다.

◆수학, 다양한 난이도 고루 출제... 영어, 작년 수능 출제 경향 유지

교사단은 수학 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교사단은 이날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별력에 따른 문항 배치 면에서 작년 수능과 매우 흡사하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이날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EBS 연계율은 50.0%다.

입시업체도 수학 영역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낮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학의 문제 배

열이 예년과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 객관식 마지막 문항 15번과 주관식 마지막 문항의 출제 파트가 바뀌면서 낮은 문항 배치로 수험생 체감 난도가 높았을 수 있다"고 봤다.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 한편, 다양한 유형에서 골고루 출제돼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소위 '킬러문항'의 요소도 배제됐다고 분석했다. 교사단은 "문제풀이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공교육을 통해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와 참신한 정답 배치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어영역은 EBS 수능 연계교재와 53.3%(24문항)가 연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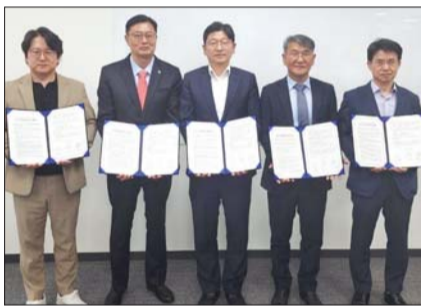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추진

인허가 공사장 2곳과 3자 업무협약
내달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 도입
연면적 5000㎡ 또는 16층 이상 대상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일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협약식. /서울시

이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내달부터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그 대상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송실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선정

2029년까지 총 55억 지원 받아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제조·문화·교육·의료 등 타 산업의 혁신을 가속할 혁신 플랫폼이자 디지털 시대 대표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송실대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총 55억원을 지원받아 매년 20명

이상의 석박사 과정을 양성하게 된다.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를 책임자로 해, 미디어 및 AI 전공 교수 11명이 교내에서 참여한 송실대 사업단은 기술·인문·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동호 교수는 "2000년 본교 글로벌미디어학부의 설립 때부터 진행해온 기술·인문·디자인이 융합된 교육에 대한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메타버스의 특성에 맞춘 인재양성과, 교내외 인문사회 분야까지 아우르는 연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용인시 中企, 태국서 40억 상당 수출상담

방콕 국제식품 전시회 참여

용인특례시는 관내 중기 6사가 지난 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태국 방콕 IM PACT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 '태국 방콕 국제식품 전시회(Thaifex Anuga Asia 2024)'에서 40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태국 방콕 국제식품전시회'는 아시아 최대의 B2B(기업 대 기업) 식품 전시회로, 올해는 52개국에서 각종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식품 제조기업 3130여

사가 참가했다. 용인특례시 단체관에선 과일소주 제조기업 '(주)소원컴퍼니', 전통주 제조기업 '농업회사법인 술샘', 전통떡 제조업체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체 '브로스라팜', 식·음료 제조기업 '우신상사 주식회사',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업 '다운' 등 6사가 참가했다.

참가한 기업들은 세계 각국 바이어와 총 181건에 걸쳐 40억 상당의 수출 상담을 했다.

시는 이번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개



지난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태국 방콕 국제식품 전시회'에 마련된 용인특례시 중기 단체관. /용인시

척을 돕기 위해 부스 임차비, 장치비 운송료 등을 지원하고 미리 현지 바이어 등을 사전에 발굴해 연결 시켜주는 등 용인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용인(경기)=유진정 기자 yujin@

서울청년 112명에 지역 상생 창업활동 지원

서울시,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

통영에서 버려지는 굴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시설제부터 김해지역 쌀을 이용한 탁주, 영월지역 할머니들과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약과까지. 전국 곳곳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청년 112명이 기지개를 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3시 DDP 3층 다자인홀에서 '넥스트로컬 6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시의 지역상생 청

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선발된 만 19~39세 청년 창업가는 시와 연계된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재 시와 연계된 지역은 (강원)강릉·횡성·영월·양구·인제, (충북)제천·괴산·단양, (충남)홍성·서천, (전북)익산, (전남)목포·강진·장흥·해남, (경북)영주·상주, (경남)통영·함양 총 19개다. /김현정 기자

대구시, 수족구병 환자 한 달 새 2배 늘어

영유아 중심 발생... 위생수칙 준수해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감시결과, 대구시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 증상인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4급 감염병)으로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해 감염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해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후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 등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는데, 증상 발생 후 1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김신우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등에서는 장난감, 문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독관리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족구병 확산 방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생분해 종이화분 나누고, 남은 원단으로 에코백 만들어

친환경 제품 소비 '탄소중립' 앞장

식품유통업계, 환경의 날 행보

식품유통업계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제품 소비를 독려하거나 환경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ESG 캠페인을 전개한다.

먼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9일까지 전국 현대백화점 16개 점포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로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산들내음 대표 상품인 방울토마토·블루베리·참외·양파·단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CJ푸드빌 N서울타워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4일부터 이틀간 친환경 종이 기업 '루뎀페이퍼'와 함께하는 저탄소 종이 체험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도심 속 힐링 캠퍼장 콘셉트로 꾸며진 N서울타워 T1 야외 광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당일 N서울타워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분해 종이 화분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00% 생분해 인증을 받은 종이 화분에 반려 식물을 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반려식물로는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테이블야자를 제공한다.

신세계푸드는 4일 위탁운영 중인 고객사 120여 곳과 손잡고 '강된장 톳 두부밥', '순두부 파스타 그라탕', '식물성 자장면' 등 식물성 대안육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며 친환경 가치와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을 펼쳤다.

유통업계는 친환경 저탄소 인증 제품을 할인 판매해 녹색 소비를 유도하는가 하면, 정부 또는 지역사회와 협업해 환경 캠페인을 펼친다.

현대백화점그룹 패션전문기업 한섬



신세계푸드가 환경의 날을 맞아 식물성 식단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현대백화점그룹 패션 기업 한섬이 리사이클링 에코백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그룹

현대그린푸드 친환경농산물 할인
CJ푸드빌 저탄소 종이 체험 이벤트
신세계푸드 대안육 활용 메뉴 제공
한섬 재고원단 '에코백' 수익 기부
SSG닷컴 저탄소 인증제품 판매
신라면세점 탄소중립 여행 활성화

은 의류를 제작하고 남은 재고원단을 업사이클해 만든 친환경 에코백을 선보였다. 에코백은 서울 강남구 한섬 청담 직영점을 비롯해 더한섬하우스 광주, 부산, 제주 등에서 3000원에 판매한다.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에 기부된다.

SSG닷컴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6월 한 달간 진행되는 '2024 녹색소비주간' 행사에 참여한다. 쓱닷컴은 행사 기간환경표지 인증

제품(생분해 다시백, 나무향기 화장지, 피톤치드 산림욕기 리필액 등), 저탄소 인증 제품(노브랜드 카모마일 베이비 물티슈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무농약 백미, 유기농 새싹보리, 공정 무역 바나나 등) 1300여종을 한데 모아 판매한다. 이어 오는 16일까지 쓱닷컴에서 친환경 인증 상품을 2만원 이상 구매 시 SSG머니 2000원을페이백형태로 돌려준다.

신라면세점은 환경재단과 손잡고 탄소중립 여행 활성화에 나선다.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서울점 '카페 라(CAFE LA)' 루프탑에서 김태호 호텔신라 TR 부문장과 이미지 환경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신라면세점과 환경재단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후원하고 오는 6월 14일과 15일 신라면세점 서울점 '카페 라' 루프탑에서 영화제를 상영하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까지 영화제 사전 캠페인을 진행해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방문한 고객이 안내 데스크에서 친환경 여행 서약을 인증하면 친환경 컵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제 상영 당일에는 환경퀴즈 이벤트, 재활용 여권 케이스 만들기 등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컬리, 상위 구매고객 9999명 VIP 선정

최상위 고객 999명은 VVIP 온·오프라인 경계없이 혜택

컬리가 고객 등급 제도를 개편하고 상위 구매고객 9999명을 위한 'VIP 제도'를 내달 1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컬리는 그동안 일정 구매 금액 이상을 충족하는 로열 고객을 위해 '컬리 러버스' 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존 컬리 러버스와 새롭게 도입되는 VIP 제도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혜택의 다양화다. 적립금 혜택이 주었던 러버스와 달리 VIP 제도는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다양한 구매 혜택과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혜택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브랜드 로열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VIP 제도 신설에 따라 러버스는 오는 30일자로 운영을 종료한다.

VIP 제도는 고객의 반기별 구매 금액에 따라 2개 등급(VVIP·VIP)으로 나뉘어진다. 구매 실적이 높은 순으로 최상위 고객 999명은 VVIP, 나머지 상위 고객 9000명은 VIP로 선정된다. 첫 혜택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의 구매 실적에 기반해 선정 예정이며, 혜택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VIP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총 5가지의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구매 혜택으로 컬리멤버스 6개월 무료 이용권과 무료배송 쿠폰을 증정한다. 전용 상담 라인도 개설된다. 컬리 이용 관련 고객 센터 문의 시, VIP 전담 상담사와 빠르게 연결되는 서비스다. VVIP고객에게는 VIP 혜택에 더해 한정판 웰컴기프트와 다이닝워크 경험을 추가로 제공한다. 웰컴기프트는 VVIP를 위해 자체 제작한 상품으로, 디저트 전문점 '아틀리에폰드'와 협업했다. /최빛나 기자

G마켓, '합배송'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

'스마일배송' 판매 데이터 분석 고객은 배송비 총 2220억 아껴

G마켓이 '스마일배송'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합배송'을 통해 총 7400만개의 택배상자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덕분에 고객은 총 2220억원에 달하는 배송비를 아꼈다.

스마일배송은 G마켓이 2014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익일 합배송 서비스로, 올해 론칭 10주년을 맞았다. 저녁 8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받아 볼 수 있는 빠른 배송과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해 G마켓의 핵심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고객 주문에 따라 상자 하나에 장바구니 속 상품을 모두 모아 발송하는 '합배송'이 특징이다.

G마켓은 이 합배송 서비스를 통해 10년 동안 7400만개 이상의 택배상자를 절약했다. 나무 1만6600그루를 보호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 일반 택배상자 크기(34×25×21)로 계산해 절약한 상자를 모두 펼치면 3091만7000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무게로는 2만2200톤에 달한



/G마켓

다. 택배상자를 가로로 이어 붙이면 총 2516만m로, 지구 둘레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배송비용을 아낀 금전적인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지 않고 합배송으로 배송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개의 택배상자에 3000원의 배송비를 책정할 경우 10년간 약 2220억원의 배송비를 아낀 셈이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고용안정 전제"

"매각 가능성·효과 검토하는 단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해 검토할 것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설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매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면서도 매각 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4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유통 업체들이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에 관심을 보여 지속성장을 위한 여러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매각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

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다만, 향후 매각으로 이어지더라도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온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이 전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 시 직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현 가맹점주들과의 신뢰도 보장 할 것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 관련, 전할 사안이 생기면 지금껏 그래왔던 바와 같이 직원들은 물론 가맹점주분들께도 공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내비쳤다. 홈플러스는 "검토 중인 부분이 매각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이미 성장성이 검

증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확대하고, 온라인 배송 인프라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차입금 상환을 통해 실적과 재무구조가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테스코에서 7조2000억원에 인수했으며,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홈플러스의 사업군 가운데 하나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달 중 국내외 유통 기업과 e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과 매각 가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뚜레쥬르 "빵 사고 아이스캔디 받아요"

SK텔레콤 T멤버십 고객 대상 에이닷 시크릿 코드 프로모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SK텔레콤 T멤버십 고객 대상 '에이닷 시크릿 코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고객들에게 시원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T멤버십, 에이닷과 함께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6월 한 달간 SKT 에이닷 앱에서 시크릿 코드를 등록하면 '인사이드 아웃2' 아이스캔디 2개 무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뚜레쥬르 매장에서 1000원(제품 1종) 이상 구매 시, '인

사이드 아웃2' 아이스캔디 2개와 교환 가능하다. 쿠폰은 기간 내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SKT T day 혜택과는 중복 적용 불가하다.

올여름 시즌 뚜레쥬르에서는 월드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의 협업으로 패키지 디자인에 '인사이드 아웃2' 캐릭터를 적용한 아이스캔디를 만나볼 수 있다. '인사이드 아웃2'에 새롭게 등장한 감정인 '불안', '부럽', '당황' 캐릭터를 적용한 팔, 요거트, 딸기 아이스캔디에 이어 기존 캐릭터 '기쁨', '슬픔', '버럭', '까칠'을 적용한 사인머스켓, 밀크, 초코, 멜론까지 총 7개의 플레이버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2024 BIO USA

삼성바이오, 신규 CDO 플랫폼 '에스-텐시파이' 공개

(위탁개발)

‘엔 마이너스 원 퍼퓨전’ 범위 확장
고농도 바이오 의약품 개발 지원
“고객맞춤 기술·서비스 고도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맞춤’ 전략으로 신규 위탁개발(CDO) 플랫폼 및 서비스를 출시하며 CDO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3일(현지시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신규 CDO 플랫폼인 ‘에스-텐시파이’를 첫 공개했다. 에스-텐시파이는 첨단 배양기술을 적용해 고농도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9년 위탁생산(CMO)에



에스-텐시파이(S-Tensify) 프로모션 이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용했던 ‘N-1 퍼퓨전’ 기술의 범위를 확장시켜 CDO에 적용한 플랫폼인 에스-텐시파이를 론칭했다.

에스-텐시파이에 적용된 N-1 퍼

퓨전 기술을 통해 최종세포배양 직전 단계(N-1)의 접종세포농도를 평균 30배까지 높여 최종세포배양단계(N)에 접종 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

다. N-1 퍼퓨전은 N-1 단계에서 관류식 배양을 통해 세포 배양과 노폐물 제거를 동시에 진행해 고농도의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기술을 토대로 배양기 내 쌓여 있는 노폐물로 인해 세포 농도를 크게 높일 수 없었던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스-텐시파이를 통해 전통 배양방식인 유가 배양 방식부터 생산성이 향상된 고농도 배양 방식까지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CD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뿐 아니라 신규 서비스 브랜딩을 출시해 적극적인 CDO 마케팅 활동에도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에서 CDO 서비스인 ‘셀렉테일러’를 선보였다. 셀렉테일러는 고객사만의 물질 특성 및 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개발 맞춤형 CMC(화학·제조·제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8월 출시했던 ‘맞춤형 개발 솔루션’을 새롭게 브랜딩해 출시했다.

민호성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개발센터장(부사장)은 “고객사 원하는 배양 방식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사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더욱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e@metroseoul.co.kr

SK바이오사, 공동 홍보관 운영... 글로벌 사업 본격화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기업 파트너링 적극 추진
“새로운 시장 진출 계기 마련할 것”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사업 확대의 기회를 모색한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3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USA)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행사에 홍보관을 공동으로 마련,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링

에 나섰다. SK 바이오 계열사들이 국제 규모의 바이오박람회 등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SK그룹의 바이오 역량을 선보임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은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미국 현지 자회사 임원이 직접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4일에는 글로벌 임상개발 담당 임원이 ‘임상부터 미국 직판까지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5일에는 지난 해

인수한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임원들이 표적단백질분해(TPD) 기술 관련 ‘분자접착제(MG) 발굴 혁신 플랫폼인 MOPEDTM를 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사업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가속화로 창출된 현금 흐름과 마케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규 모달리티(Modality) 기술 플랫폼과 향암으로 영역을 확장해 ‘빅

바이오텍’을 향한 약진을 본격 전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SK의 바이오 사업을 알리고, 파트너십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체 개발한 혁신 신약으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역할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BIO USA를 통해 그간 파트너십을 맺었던 기업 및 기관들과 관계를 더욱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한 SK바이오사이언스 부스에 현장 관람객들이 모여 있다.

공고히 하고 신규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기회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쩍 높아진 SK 바이오 사업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노사, 임단협 무교섭 타결

22년 연속 무쟁의 기록 이어가

생활부터 기업 애경산업과 노동조합은 회사의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애경산업 노사는 지난 3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애경산업 본사에서 김상준 대표이사와 김혁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단협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임단협 협약은 노사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뜻을 모으고, 노조가 임금협상을 회사에 위임하며 무교섭으로 타결됐다. 이는 노사가 경영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며 상호 간 신뢰를 공고히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한편 2003년 이후 22년 연속 무쟁의 기록도 이어가게 됐다.

애경산업 노사는 협약식에서 임금 외 ▲직원 복리후생 제도 확대 ▲노사 간 소통 지속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 등을 합의하며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애경산업과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애경산업 본사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교섭으로 타결하는 ‘2024 임단협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서 애경산업 김상준 대표이사(오른쪽)와 김혁중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혁중 노조위원장은 “애경산업 노조는 대립이 아닌 회사의 발전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무교섭 위임이라는 결정을 하게 됐다”며 “평소 회사와 노조가 당면한 쟁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경산업 김상준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대응적 차원의 무교섭 위임 결정을 해준 노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체적 노사관계 지속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옵리클로’ 3상 데이터 공개

(알러지성 천식·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유효성·안전성 확인... 유럽 공략 박차

셀트리온은 ‘2024 유럽 알레르기 임상 면역학회(EAACI)’에서 알러지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옵리클로(CT-P39)’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학회에서 CT-P39 300mg과 오리지널 의약품 300mg을 투약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409명의 글로벌 임상 3상 24주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을 통해 확인한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옵리클로의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옵리클로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출시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빨리 허가 받은 플레이어 바이오시밀러로 ‘퍼스트 무버’ 지위를 획득,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브이올렛’ 자문의 13인 위촉

(국산1호 지방분해 주사제)

대웅제약은 지난달 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4년 첫 ‘다바(DAVA)’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최고 미용성형 권위자로 구성된 브이올렛 홍보대사 겸 자문의 13인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브이올렛은 글로벌 제약사의 철수로 침체 상태였던 국내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국산 1호 지

방분해 주사제다. 지난 2021년 턱밑 지방분해 주사제로 품목허가를 받고, 출시 후 연평균 165% 성장률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브이올렛 홍보대사 겸 자문의 ‘다바(DAVA)’는 지난해 8명으로 시작해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브이올렛의 다양한 활용법과 시술법을 전파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롯데시네마 ‘라이브 시네마’ 론칭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브랜드 ‘제로월드’와 손잡고 몰입형 체험 공간 ‘라이브 시네마’를 신규 론칭한다.

롯데시네마는 기존 상영관을 활용한 전시 ‘랜덤스퀘어’에 이어 오감으로 콘텐츠를 경험하는 공간 ‘라이브 시네마’를 오는 15일 롯데시네마 흥대입구에 새롭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라이브 시네마’는 ‘라이브(LIVE)’와 영화관을 뜻하는 ‘시네마(CINEMA)’를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화관’을 의미한다.

해당 공간은 스토리의 주인공인 ‘관객’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썬스틸러(연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롤플레이팅 체험으로 꾸며진다. 기존 방탈출의 단순 자물쇠 풀이에 서 벗어나 스토리 주인공으로서 썬스틸러와 협동해 각 공간마다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한다.

특히 영화관이라는 장소의 특색을 활용하여 다채롭게 구성한 공간은 관객이 직접 스크린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압도적인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2024.06.19(수)

14:00~17:0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 행사명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 주제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4:00~17:00
-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 후원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 사전접수 2024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024. 6. 3(월)
IBK기업은행, 대한태권도협회 후원... 3년간 12억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종목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태권도 종목 공식 파트너로서 유소년 유망주 육성, 국가대표 지원 등 3년간 12억원을 후원한다. (왼쪽부터)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LS마린솔루션-KRISO, 해저 자원 탐사·개발 맞손
 LS마린솔루션은 KRISO와 '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해저광물 및 가스 자원 탐사를 시작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술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왼쪽부터)전봉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장과 이승용 LS마린솔루션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동서식품, 이웃돕기 성금 1억 기탁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사진)이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약 1억원을 네이버 해피빈에 기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무더운 날씨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소외이웃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탁한 성금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수혜처에 전달되어 휴식기 대비 물품 구입,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포스코 노사, 몽골 취약계층에 구형 근무복 기부
 포스코 노사가 30년간 함께해온 구형 근무복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데 첫 결실을 맺었다. 4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자르갈란트 지역개발교육센터에서 몽골의 저소득 목축농가에 구형 근무복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1만벌은 작업복 등으로 활용하며, 2만벌은 마다가스카르 직업훈련 봉제센터에 기부됐다. /포스코



에어부산-롯데호텔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에어부산이 부산 대표 5성급 호텔 롯데호텔부산과 지역 경제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 4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3일 롯데호텔부산 대회의실에서 롯데호텔부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롯데호텔부산 이동주 총지배인 에어부산 마호진 영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

오비맥주, '2040 탄소중립' 선포... "ESG 경영 활성화"

**세계 환경의 날 맞아 미래비전 공유
 하천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비맥주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4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오비맥주는 지난 3일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열린 강남 그린 페스티벌에 참석해 강남구와 탄소중립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협약에는 오비맥주를 포함한 강남구 관내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강남구가 주최한 '강남 그린 페스티벌'은 민·관·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협력의 장으로 업무 협약식과 함께 기업, 시민실천단이 전시 부스를 선보이는 그린 엑스포가 열렸다.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오비맥주가 3일 강남구 본사에서 개최한 '넷제로 서밋'에서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이사, 김석환 구매 부사장,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수석 부사장, 팽웨이춘 생산 부사장(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이 '2024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오비맥주는 그린 엑스포에서 넷제로 존, 업사이클링 존, 카스 희망의 숲 존 등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탄소저감 활동을 소개했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 포부를 위한 여정, 카스 맥주박을 업사이클링

해 만든 화장품과 식품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했다. 몽골 사막화 방지 및 탄소 감축을 위해 15년째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는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도 퀴즈 이벤트를 통해 선보였다. 임직원 대상으로는 '넷제로 서밋

LG생건, 종로 에코스테이션 운영... '재활용' 앞장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로비 설치
 충전기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 수거**

LG생활건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와 손잡고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열린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업무협약식에는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 정문현 종로구청장,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코스테이션 시설 설치 비용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은 오는 7월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충전기, 멀티탭, 보조배터리, 정수기 필터, 전선, 우산 등 이른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3일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 정문현 종로구청장, 정관 스님(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거한다. 재활용이란 폐자원을 새로 디자인해서 문화 또는 환경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폐자원을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에 가지고 온 주민에게는 물품 개수에 따른 보상으로 스탬프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스탬프로 LG생활건강의 샴푸, 린스, 세제, 바다위시 등을 상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거한 폐자원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

버너스에 전달해 재활용과 재사용 원료로 활용한다. 또 LG생활건강은 종로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화장품 공병 수거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에는 하루 50명, 연간 7000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스테이션 내 각종 체험존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 업사이클링 실습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익명의 독지가,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립기금 100억 기부

김동원 총장 "세종캠퍼스 위상 강화"

고려대학교는 최근 익명의 독지가가 세종시 공동캠퍼스 내에 들어설 세종캠퍼스 건립 기금으로 100억 원을 쾌척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부로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세종시 공동캠퍼스 구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서는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다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교사 및 지원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하게 한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스마트도시학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등 첨단 분야 학과와 더불어 행정전문대학원까지 총 790명 규모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게 되며 2026년 2월까지 착공을 완료해 개교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의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공공부문 특화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익명의 독지가는 "세종시 공동캠퍼스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한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들이 타대학,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세상을 넓게 보며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세종시 공동캠퍼스내의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는 익명의 독지가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공동캠퍼스인 만큼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현진 기자 hj@

(Net Zero Summit)'도 개최했다.

스코프 1·2탄소 감축,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 재활용 페트(rPET) 도입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친환경 아이디어를 시상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임직원들이 탄소중립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감탄스탬프 챌린지를 운영했다.

오비맥주는 저감 탄소의 줄임말인 '감탄' 챌린지를 통해 대중교통 출근, 탄소저감 커피·비건 두유 모닝카페 이용, 그린엑스포 부스 체험, 넷제로 서밋 참가 등 4개 미션을 모두 달성한 임직원에게 친환경 생활용품과 간식으로 구성된 '감탄 키트'를 제공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휴앤쇼핑 "매실, 저렴하게 챙기세요"

휴앤쇼핑이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매실 주산지 지자체인 광양, 순천, 하동 그리고 순천농협과 협력해 1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매실 소비촉진 상생 마케팅 할인행사'를 펼친다.

4일 휴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산 매실의 소비를 촉진하고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산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반,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매실을 박스(5·10kg)당 최대 23%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는 준비한 4만2000박스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진, ESG 보고서 발간

(주)한진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핵심가치 및 활동·성과를 담은 '2024 한진 ESG 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4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첫 발간 이후 올해 세 번째로 발간한 ESG 보고서는 ESG 경영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진의 ESG 경영 추진 전략과 성과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김승호 기자



부음

▲설삼길씨 별세, 이두하씨 남편상, 설도윤(한국뮤지컬협회 전 이사장)·설도권(클립서비스 대표이사)씨 부친상=4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 발인 6일 08시. 02-3410-3151-3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반딧불이야, 안녕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한밤중, 하강하는 듯 솟아오르는 듯 느릿하게 유명하며 마당 한편을 배회하는 반딧불이를 보았다. '개똥벌레' 혹은 '반디'라고도 하는 불리는 그 벌레가 돌아왔다. 사실 나는 고사성어인 '형설지공'이란 말이 믿기지 않는다. 아주 어릴 적 유리병에 반디를 잡아 넣고 글자가 보이는지를 실험했는데 아예 불가능했다. 그래서 형설지공이란 고사성어를 배울때 은근히 반발한 적이 있다. 마당에 나무가 우거져 가로등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만 날으는 반딧불이가 가엽기도하고, 가상하기도 하다.

처음 반딧불이를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을 깨워 함침이나 마당에 앉혀놓고 법석을 떠는 기억이 난다. 아이들은 처음 신기한 듯 떠다니는 '형광' 빛을 바라봤지만 곧 시들해져 나 혼자 추억에 잠겼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나는 마당에서 살았다. 그제 밤을 보내는 일과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위안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대개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

는 짙은 어둠속이었다. 심지어는 밤 열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그 시절 직장인이라면 다들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랬다. 돌아와 불빛 하나 없는 골짜기, 마당에 외등도 꺼놓고는 한동안 반딧불이 불빛을 감상하고는 들어가 잠들었다.

여전히 우리 마당에는 반디가 살고 있다. 그 반딧불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언제 소멸할지는 가능조차 할 수 없다. 다만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지금 내 마당에 반딧불이가 서식한다고 자랑하는게 아니다. 얼마전 어떤 바다거북이는 암컷만 생겨나 멸종할거라는 뉴스를 보았다. 그 거북이는 바다가 온난해져 암컷만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성장하면서 성이 결정되는 이유에서다. 우리 마당의 반딧불이도 이미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 징후가 엿보인지 두려워 전이다.

집을 지은 후 처음 우리집에서 발견된 건 도롱뇽이다. 도롱뇽도 완전히 사라졌다. 차가운 침출수 웅덩이가 있어 도롱뇽이 부화하기에 알맞았다. 그 웅덩이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밭에 물도 주고, 밭갈이 잦아 도롱뇽은 소멸했다. 애당초 도롱뇽은 여기 당당한 잣나무굴의 일원이었으나 주인이지 않은 우리가 주인을 소멸시킨 거나 다름 없었다.

더군다나 요즘 슬슬 사라져가는 것 중에는 벌과 나비도 있다. 요즘에 꽃처럼 만발해야할 곤충이 벌, 나비다. 특히 벌은 분주해야 한다. 대체로 벌꿀은 아카시아꽃이 필때와 밤꽃 필 때 수확한다. 그리고 가을 꽃이 피면 일년에 세차례 벌꿀을 수확하므로 지금 두벌째 수확기를 거치며 분주해야 맞다. 그러나 지금 어느 숲에서도 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이제 양봉업자의 별통만 남았다고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싶다.

그렇게 많던 참새가 잠시 돌아왔다고는 하나 예전 처럼 많지는 않다. 그리곤 까치나 꿩도 보기 어렵다. 이사왔을 당시 새소리가 소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풀벌레소리도 크게 줄었다. 아파트 불빛이 대낮같은 도시는 오죽하랴. 그것들이야 다 곤충들이고, 없어진다고 무엇이 불편하랴만... 벌이 사라지면 동식물 수만종이 함께 소멸한다는 것은 이미 수도 없이 경고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대부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경고가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기서 도롱뇽이 사라지는 걸 보았으며 벌과 나비가 스러져 가는 걸 목도하고 있다. 그저 어찌 할 수 없이, 다음 단계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여의도의 검찰화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긴장감이 고조되던 여의도는, 이제는 그 긴장감을 디폴트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금융투자업계에 강력하게 던져졌던 경고들이 잔류하면서 시장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자주 꼽는 이 원장의 키워드는 '검찰식 검사'다. 의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이 많았다는 평가다. 결국에는 감독 및 제재 등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부터 소시에티제네랄(SG)발 주가폭락 사

태, 불법공매도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금융투자업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이 원장은 증권업계 입성 후 '다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꺼내들었다. 이 여파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등의 중징계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후 증권·금융투자업계의 '세대교체'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금감원장 자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등이 맡아왔다. 금감원의 스타일이 이전과는 확연히 바뀐 것이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던 만큼, 금감원장 취임 후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금감원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이 원장은 현안을 파격적으로 처리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 또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상

위 부처였던 금융위와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요즘 여의도의 실체는 금감원이다.

반면, '관치 금융'이라는 수식어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증권사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강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원장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 어느새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이 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되면서 밸류업 등 관련 정책이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임과 동시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돼 있는 만큼 '윤의 남자'인 이 원장이 각종 현안을 잘 마무리해 주길 기대해 본다.

/goche@

오늘의 운세 6월 5일 (금 4월 2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천국에는 예술이 있을까. 48년생 차질하리만큼 아픈 사랑도 있으니. 60년생 슬픔과 고통은 창조적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슬퍼 말자. 72년생 물러설 때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지름길. 84년생 금전 결핍도 무섭고 애정 결핍도 무섭다.



37년생 퇴직했어도 분투해서 노력하여 일어난다. 49년생 노력에 따라 발전도 가능. 61년생 하나는 일시적 감정일뿐 하나는 결실을 이루는 감정인데. 73년생 사랑에는 질투가 따르니 잘 선택. 85년생 현실은 돈이 있어야 하니 좀 더 일하자.



38년생 망설이다가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50년생 계획이 없으면 늘 허무하다. 62년생 돈은 현실의 힘이니 어디든지 취직하도록. 74년생 고목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니 행운이 온다. 86년생 인생에는 인과과 있으니 좀 베풀도록.



39년생 호랑이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51년생 적금을 타니 너무나 행복하다. 63년생 부자는 일반적 소원이지만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 75년생 공부로 창조력을 키워라. 87년생 가정이란 비전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



40년생 돈도 있어야 하니 현실의 꿈을 향해서. 52년생 강남의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 64년생 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는 힘이 있다. 76년생 침묵이 금이지만 말할 시기. 88년생 또다시 내일을 위해서 도전.



41년생 남의 땅의 넓은 들판도 부럽지 않다. 53년생 재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신념으로 자신 것으로 만들어야. 65년생 행복만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77년생 발전은 노력에 따라온다. 89년생 다시 용기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자.



42년생 태양 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54년생 아침부터 손풍에 뚫뚫해 가듯이 매우 순조로운 하루. 66년생 사랑이 어디 감미롭기만 하던가. 78년생 고뇌의 가시밭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 90년생 돈 벌기에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43년생 지금의 공부함은 저축으로 기반을 다지고 왔다. 55년생 변화 없는 순조로운 하루. 67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79년생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노력 뒤엔 성과가 따른다. 91년생 목숨의 의미는 죽음에서 풀이되는 것이다.



44년생 행동의 폭이 넓어지는 하루. 56년생 절약과 인색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68년생 독서의 즐거움은 승진에도 적용될 수. 80년생 일이 안 풀린다고 우는소리 하지 마라 인생사 모두 내 탓이다. 92년생 지하철 중점에서 중점으로 가보자.



45년생 집안의 청소를 내가 해보는 것도. 57년생 뚱뚱의 좋은 일이 있었다. 69년생 제시 간에 꼭 일어나는 습관을. 81년생 면접에서 탈락했다면 자기 수양에 대해 질문해보라. 93년생 자녀가 사회에서 갖는 도덕성은 가정에서 기초가 된다.



46년생 열심히 일하며 맘 풀리자. 58년생 뿌린 대로 거두니 착하게 살자. 70년생 뚱뚱 봉사에서부터 시작해보라. 82년생 과일도 제 위치가 있으며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익는다. 94년생 사주는 믿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다.



47년생 자식의 독립은 금전적 독립 없이는 힘들다. 59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 71년생 항상심을 갖자. 83년생 연애는 우정과 다르니 남자친구의 여자 친구에게 예의를. 95년생 가정은 사회의 표본이니 집에서 책임을 다하자.



김상회의四季 풍수의 대가

현대에 들어 풍수의 영역을 미신적인 관점이 아닌 설득력 있는 지리학적 환경학적 관점이 겸비된 과학성을 부여한 인물이 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이다. 필자 역시 명리학의 길에 들어서면서 풍수에 관한 기초와 이론을 접하였고 이에 관한 실증 공부 차원에서 스승님을 따라 한국의 좌청룡 우백호라 이름난 곳들을 열심히 탐방했다. 풍수를 과학성을 지닌 학문으로 격상시키고자 실제로 명당 찾기에 올인하던 풍수계의 풍토를 사람과 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서로를 살리며 살아나가는 자생풍수를 확립하고자 헌신한 분이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명당의 주인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을 터이다. 부와 권력의 유전으로서 풍수의 관점이 고착된 것을 안타까워했었을 것이란 느낌은 그분의 여러 기고와 주장에서도 확고하게 느낄 수가 있다.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곳에서 충분히 흥을 보유했고 더 나아가 길로 바꿀 수 있음도 주장하였다. 어찌 보면 서민 풍수라 이름해도 가할 것이다. 지리학적인 관점에서라도 사실이 그러한 반열로 올리고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헌신했다. 그것도 과거 전통지식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와 미래에 환경생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상으로 풍수를 올려놓았다.

“후반기에는 중국 풍수와는 다른 한국적인 자생풍수의 정체성과 땅과 사람이 상보한다는 비보적 사상성을 확립시키고자 했다” 고인의 서울대 제자인 최원석 경강국립대 교수의 평가다. 최 교수는 “땅을 어머니처럼 내 몸처럼 대하라는 최창조 교수의 사회적 메시지는 오늘날 기후위기에 커다란 통찰과 울림을 던진다”라고도 했다. 한국의 근대 풍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고 최창조 교수를 추모하면서 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4		3	2	9
		9	4		3
8		2			
	2		5	9	7
1		4	9	2	6
	6	7	4		5
			5		8
4		8	6		
2	8	6		9	7

4			5		6
7		1	3	9	4
6	2			5	
5	8	3	2		
3				1	
		1	4	6	3
	4			2	5
4	7	5	6		3
1		8			7

2	6	9	6	8	9	1	2
9	2	8	9	1	8	6	2
8	7	1	9	2	8	6	9
2	9	8	1	7	8	9	6
9	8	2	6	7	9	8	1
1	2	6	8	9	7	2	8
8	9	9	6	2	1	8	8
8	1	9	7	8	6	2	9
6	8	2	8	1	9	7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5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초학력 강화부터 IB교육·특수학교 신설까지 이끈 대변혁”

교육이 미래다

‘조희연표 서울 교육 11년’ 핵심 키워드 공존·혁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로 11년차를 맞으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014년 첫 취임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내년 고교 3학년을 끝으로 의무교육 과정을 마친다. “혁신 미래 교육으로 21세기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며 첫 취임을 알렸던 조 교육감은 3선을 거치며 ‘공존’과 ‘혁신’으로 목표를 구체화해 서울 교육을 다듬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기초학력 양극화가 교육계 난제로 꼽히는 가운데, 공교육 현장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공존과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짚어본다.

◆ ‘기초학력’ 전담과 신설… 10여 년 재임 기간 특수학교 4개 신설 추진

3선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첫 일성은 기초학력 보장이었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두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견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전담하는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신설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수학습과 기초학력진단·평가·분석 기능을 통합한 모습이다.

기초학력 저하 해소위한 교수학습 문해·수리력 중심 진단검사 도입 공립4개·사립1개교 특수학교 신설 서울교육소통광장 플랫폼 운영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발·시행한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 기초학력 진단검사’에도 조 교육감의 학생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개교, 약 4만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교과 학습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된다.

장애 학생 학습권 확보를 위한 행보도 눈에 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9월 나래학교 개교를 시작해 2020년 3월 서진학교를 개교했고, 현재는 중랑구 신내동에 (가칭)동진학교를, 성동구에는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명수학교가 서울다윈학교로 전환됐으며 2017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 서울효정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0여년 간 공립으로 전환된 2개교를 포함해 공립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해 7월 교육감 제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4개교, 사립1개교 등 총 5개 특수학교가 서울 관내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2029년 3월 성진학교가 문을 열면, 서진학교와 나래학교에 이어 동진학교, 성진학교를 포함해 조희연 교육감 재직 시에 4개의 특수학교가 만들어지게 된다.

◆ “시민 제안, 정책에 반영”…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교육소통광장’

올 초에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소통광장’을 개통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다. 기존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갈등 의제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묻고 응답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정책설문은 서울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답 현황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돼 응답자 수와 응답 비율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2일 기준 서울교육소통광장에 올라온 시민 제안은 130건으로,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독서캠페인 ‘북웨이브’와 관련한 제안 글이 다수 게재됐다. 제안 글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2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소관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개봉 후 반기가 채 지나지 않아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다양한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참여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토론·체험’ 중심 IB교육…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전국 확산

바칼로레아(IB)교육은 세계와의 ‘공존’에 더불어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사례로 꼽힌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국제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토의와 토론,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며 논·술형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한다는 특징이 있어 강의식 교육과 객관식 평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IB 열풍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첫 IB 정책연구에서 시작해 2019년 대구와 2020년 제주에서 공교육 도입을 시행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제1기 참여 학생이 지난 2021년 농촌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농촌유학 유튜브 리틀 포레스트 캡처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관내 IB교육의 초석이 될 IB탐색학교 31곳을 지정해 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인 KB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IB교육은 진보교육감대표 교육정책인 ‘혁신교육’과 공통점이 많다. 교사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다. IB교육은 이에 더 나아가 객관적 평가 틀이 마련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혁신교육’을 보완한다는 평가도 있다.

IB교육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현재 대학입시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IB 수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 폐교 직전 학교가 ‘복적복적’… 농촌유학, 3년간 누적 1050명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조 교육감의 핵심 정

책 중 하나다.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정책이다. 과밀학급과 경쟁 스트레스에 지친 서울 학생은 자연을 경험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는 학생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촌유학을 시작한 후 2022년 전라북도, 지난해 강원특별도 등으로 유학 지역을 확대했다. 2021년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폐교 위기에 처했던 전남 구례 중등초등학교가 현재 경쟁률 2대 1의 학교로 변화한 점은 농촌학교 프로그램이 보여준 긍정적 사례 중 하나다.

IB교육, 객관식 평가 등 대안 주목 지난해 IB탐색학교 31곳 지정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농촌유학 확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도 지속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며 좌초 위기를 맞은 듯 했지만,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촌유학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두 가지에 근거해 시행됐다.

최장수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과정은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1학기 235명에서 이번 1학기 305명으로 30%p가량 늘어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최대 1년인 유학 기간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간을 연장할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누적 1050명의 학생이 농촌유학을 경험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공존과 혁신’의 정책 관련 이미지.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제출… “이-팔 3단계 휴전안 지지 촉구”
▲ 英 노동당 “핵무기 사용 준비해야… 집권하면 핵잠수함 건조” /사진 뉴시스

▲ ‘오스트리아 첫 여성 총리’ 비를라린 별세… 향년 74세
▲ 긴장 감도는 중국 6·4 텐안먼 35주년… 성루·지하철 출구 폐쇄



▲ 중국 청소년 형사책임 14세에 12세로 하향 추진
▲ 라이칭더 대만 총통 6·4 35주년 “독재에 자유로 대응해야” /사진 뉴시스



식품유통업계
친환경 제품 소비
탄소중립 앞장
나



Life

삼성바이오
CDO 플랫폼
서비스 출시
L2



지난 3일 오후 화의군 이영 묘역을 찾았다.

/김현정 기자

절개와 의리 지킨 왕자, 조선의 역사와 함께 잠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는 조선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화의군 이영 묘역이 바로 그곳이다.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진관동이라는 동명은 지역 내 진관사라는 절이 있는 데서 유래했다. 고려 현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 진관사의 전신인 신혈사에 숨어 있었다. 당시 작은 암자였던 신혈사에서 수도하던 진관조사라는 노승이 그를 도왔고, 왕이 된 현종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절을 새로 짓고 승려의 이름을 따 '진관사'로 명명했다.

♥ 되살아나는 서울 ⑧ 은평구 '화의군 이영 묘역'

◆ 불천지위 하사받은 육종영, 화의군 이영

지난 3일 오후 은평구 진관동 산60-2번지에 자리한 화의군 이영 묘역을 방문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4번 출구 앞에서 7723번 버스를 타고 '제각말5단지·은평뉴타운도서관' 정류소에서 하차해 진관생태다리쪽으로 5분을 걸어 목적지에 다다랐다.

화의군 이영 묘역의 뒤에는 북한산이, 앞에는 아파트단지가 둘러쳐졌다. 홍살문(약구를 물리치고 액운을 쫓고자 세운 문)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작은 연못이 나 있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서울의 능묘'에는 이곳의 홍살문이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다. 화의군 이영 묘역의 홍살문은 순조 10년(1810)에 왕명으로 불천지위(공훈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당에 안치하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의 전교와 함께 받은 것이다. 불천지위를 하사받은 왕실은 태조의 장남인 진안대군과 화의군 둘 뿐이라고.

조선의 4대왕 세종의 여섯번째 아들인 화의군 이영은 학문에 조예가 깊어 세종의 한글창제에도 참여했으며, 훈민정음처의 감독관을 지내기도 했다.

홍살문 앞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가면 영절문(影節門)이라는 현판이 붙은 건물이 나온다. 영절은 '큰 절개를 비춘다'는 의미로, 화의군 이영의 절개를 추모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서울의 문화재'에 의하면, 화의군 이영은 1455년 금성대군 등과 결탁해 국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외지에 부쳐됐다가 이듬해 사면된 뒤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돼 전라도 금산에 안치됐다.

화의군은 정조 때 종친 중 절의가 깊은 인물로 널리 알려져 ▲안평대군 ▲금성대군 ▲한남군 ▲영풍군 ▲하령군과 함께 육종영으로 불렸다. 육종영은 단종을 위해 세조와 맞서다 죽임을 당한 6명의



① 화의군 이영 묘역 앞 '홍살문'. ② 16세기 묘제와 석물조각을 볼 수 있는 묘역.

세종의 여섯번째 아들... 한글창제에도 참여 절의 깊은 인물로 알려져 '육종영'으로 불려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돼 전라도 금산에 안치 16세기 중반 조성된 묘역 방식 엿볼 수 있어

종친을 가리킨다.

이날은 아쉽게도 문이 잠겨 사당을 둘러볼 순 없었다. 그 좌측엔 재실인 충경재가 건립됐다. 이곳 역시 내부 접근이 불가능했다.

◆ 사망 시기 의견 분분

화의군의 묘는 묘역 맨 위에 단분 합장 형태로 안치됐다. '서울의 문화재'에 따르면, 화의군 묘역 내엔 분묘를 중심으로 뒤쪽으로는 곡장이 둥글게 둘러졌다. 계체석을 경계로 위쪽으론 묘갈과 혼유석이, 아래쪽으론 문인석, 무인석, 망주석이 좌우로 각 1기씩 배치됐다. 두 무인석의 중간엔 장명등 1기가 자리했다.

묘갈의 머리부분은 반원형으로 구름무늬가 돌을새김으로 조각됐으며, 앞면 구름무늬 한가운데엔 해를, 뒷면엔 그믐달을 새겨 넣었다. 비의 몸돌은 방형으로, 앞면에 적힌 '화의군지묘'와 뒷면에 쓰인 '융경3년4월일립'이라는 문구를 통해 묘주의 신분과 묘갈 건립 연대가 1569년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는 "화의군 이영 묘역은 16세기 중반 조성돼 선조~영조 연간의 묘제와 석물 조각 방식을 잘 보여준다"며 "비교적 원형이 제대로 보존돼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능묘'에는 세조 3년(1457) 금성대군이 단종복위운동으로 죽임을 당하고 화의군도 전라도 금산으로 귀양을 가서 사약을 받아 이곳에 처음 묻혔다고 나와 있으나,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국가유산청은 "성종대왕실록에 1489년 65세가 된 화의군이 자신의 죄에 연루돼 서민으로 사는 서자를 종실의 일원으로 거둬 달라고 상서하자 성종이 조정의 논의를 거쳐 그의 자손을 천역(賤役·천한 일을 하는 사람)에서 면해 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금산에서 사약을 받고 향년 36세를 일기로 순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의군 이영 묘역의 재실을 비롯한 전체 공간은 6필지, 6만8194㎡ 규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2월 8일 이 중 265㎡ 면적에 총 10기 유적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4호로 지정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BO 5월 MVP 10명 경쟁...곽빈·도슨·에레디아 등 선정
▲2023~2024시즌 유럽 챔스리그 '최고의 별'은 비니시우스 /사진 뉴시스

▲US여자오픈, 27년 만에 한국 선수 톱 10 진입 실패
▲양궁 고교생 국가대표 후보선수들, 2024 유럽그랑프리 대회 출전



▲여자축구 U-20 대표팀, 강호 미국 상대로 4-2 승리 /사진 뉴시스
▲한국男篮, 카타르 꺾고 AVC 챌린지컵 8강 진출